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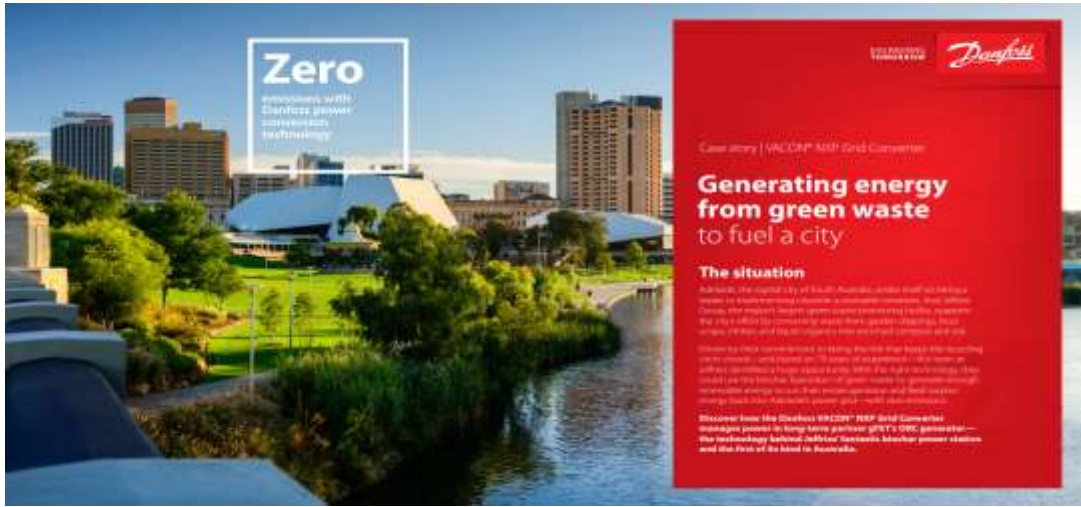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덴포스코리아

산업 전반에 경계없이 에너지효율화 솔루션 제공



덴포스는 전기 사회와 디지털화를 발판삼아 내일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ctivities

1) 대학협력 지속사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일환으로 2021년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와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과 저탄소 R&D 개발, 친환경 기업 육성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부산하 KSCA(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의 기업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캠퍼스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의 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회의 대학교들과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정책포럼 개최 및 의정부시와 MOU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트레이닝센터 설립 및 운영: 파트너, 컨설턴트, 엔드 유저 등에게 선진기술을 전파하고 기술보급을 통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테스트 베드를 포함한 Training Center를 올해 6월에 오픈하였고 세미나 및 데모룸 관람 등 70여개 유관기관, 300명이상 방문하였다.

덴포스는 냉동공조 및 전동화 사업분야의 선두주자로서 2023년에는 “내일을 위한 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00여개 유관기관 및 7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여성리더십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GTP,PGP): ESG 전략 중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Diversity & Inclusion)에 가치를 두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목적 중심의 경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모든 측면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채용, 유지를 통해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글로벌 경영팀의 성별과 국적 다양화, 글로벌 여성 리더십 30%를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1974년부터 시작하여 2년동안 글로벌 4개의 다른 지역에서 여러 부서의 멘토링을 함께하는 PGP(Postgraduate program)와 국내에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다양한 사업부의 멘토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GTP(Graduate Trainee Program)를 운영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리더십 발굴과 개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함께 내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선진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727 만 5266 동) 가운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281 만 9858 동(38.7%)에 대한 에너지효율 100% 달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EP100(에너지 효율 100%달성)의 조기달성 노하우 전파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R&D사업 수행 및 국가기술력 발전과 국내기업의 성장에 기여



Performance(성과)

덴포스그룹은 2007년 대비 51%의 에너지 효율 개선, 104% 에너지 생산성 향상, 25%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성과를 만들어 냈다. 회사의 목표를 UN SDGs 9개 목표에 대해 연계하였고, 2019년 UN산하 기후 그룹(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 EP100, RE100, 그리고 EV100에 모두 가입한 최초의 글로벌 기술기업으로써 EP100(2030년 에너지 생산성 100%)은 2021년 104%를 달성했다.

덴포스코리아는 현 김성엽 동북아시아 총괄 대표가 17년 취임한 이래 지속 가능한 중장기 ESG 경영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22년 매출은 18년 대비 2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10년내 5배 성장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Future(전망)

덴포스는 ESG 2030 목표를 수립하여 탈탄소, 순환경제, 다양성 및 포용 등의 ESG를 실행해 나갈 것이며 한국 비즈니스 또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덴포스만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개,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고민과 다양한 ESG 경영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P4G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포럼을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빌딩’ 주제로 개최하여 한국·덴마크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비용과 CO2 배출량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오존층 파괴지수 ODP(Ozone Depletion Potential)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구온난화 지수를 최대 65%까지 절감했다.

GEAN(Global EV Association Network)의 운영이사회 멤버로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와 농기계 전동화 및 자율주행 엑스포 등에 참여하여 국내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하여 정부의 2030 그린십K 추진 전략에 부응하여 20년 7월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어업 지도선 8 척과 수산과학조사선 1 척, 총 9척 친환경 추진 선박 프로젝트 관련 ESS 기반 하이브리드 촉발전 솔루션을 국내 기업에 기술 지원하여 수주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기술발전과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다.